

### 인도 · 태평양지역 국가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 ■ 인도 · 태평양지역 ‘국가 호감도’

- \_ 미국과 호주 호감도 높고, 중국과 러시아 낮아
- \_ 2030세대, 국민전체 대비 남성층 호감도 높아
- \_ 4060세대, 60대이상 국가호감도 가장 높아
- \_ 진보층, 호감가는 국가 수 8개로 특히 많아
- \_ 4대 강국 호감도 : 성/연령별, 이념별로 차이 보여

#### ■ 인도 · 태평양지역 ‘국가 중요도’

- \_ 모든 국가, ‘중요도’ 높아지고, 미국 단연 1위
- \_ 2030세대, ‘미국 중시, 중국 거리두기’ 뚜렷
- \_ 4060세대, 2030세대와 달리 ‘중국’ 중시 경향
- \_ 보수 · 중도층 ‘중국 거리두기’ vs 진보층 ‘중국 협력’
- \_ 중국과 일본 중요도 따라 세대, 이념간 의견 갈려

#### ■ 향후 세계 경제강국 전망

- \_ ‘미국’ 우위 유지되는 가운데, ‘중국’ 응답 하락
- ※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

## 조사개요

|       |                                                     |
|-------|-----------------------------------------------------|
| 조사기간  | 2022년 6월 10일(금) ~ 6월 12일(일)                         |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
| 조사기관  | 케이스탯                                                |
| 표본추출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
| 표 본 틀 | 케이스탯 K-패널                                           |
| 유효표본  | 총 1,006명                                            |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9\%$                   |
| 가 중 치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br>(2022년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

##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호감도'

### 미국과 호주 호감도 높고, 중국과 러시아 낮아

-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 중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3.60점)으로 조사됨
  - "선생님께서서는 평소 다음 각각의 나라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계세요?"라는 질문 후 '전혀 호감이 안간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호감이 간다' 5점을 기준으로 응답토록 한 결과임
- 다음으로 '호주'(3.57점), '싱가포르'(3.45점), '대만'(3.18점), '태국'(3.10점) 등이 보통 이상의 호감도를 기록함
- 호감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중국'(2.00점)이고, 다음은 '러시아'(2.11점), '일본'(2.43점) 등임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호감도'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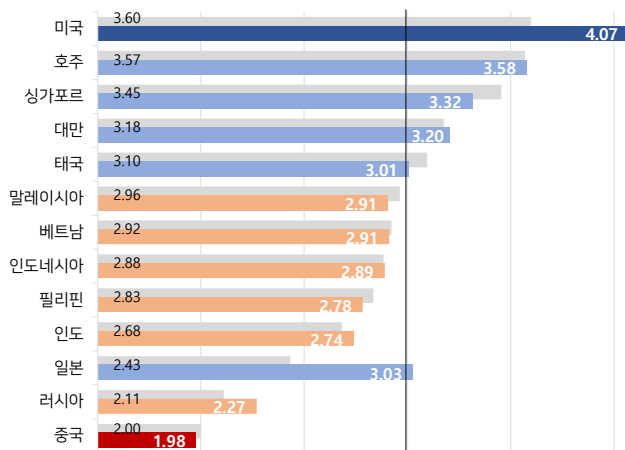
#### Kstat Point

- ☑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확산되면서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 : 중국은 '일대일로(一帶: 육상 실크로드, 一路: 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아시아 전체와 아프리카, 유럽까지 아우르는 경제패권 확대를 추진 중임
  - : 이중 일로(一路), 즉 해상 실크로드에 위치한 동남아, 서남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미국은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을 인도·태평양전략으로 확대함
  - :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강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 이번 케이스탯 조사는 이러한 국제질서 재편 흐름에 발맞춰,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함
  - : 우리나라 역시 2017년 부터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ASEAN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의 협력을 강화 중임
  - :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 중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5개국에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이 포함됨(아세안 가입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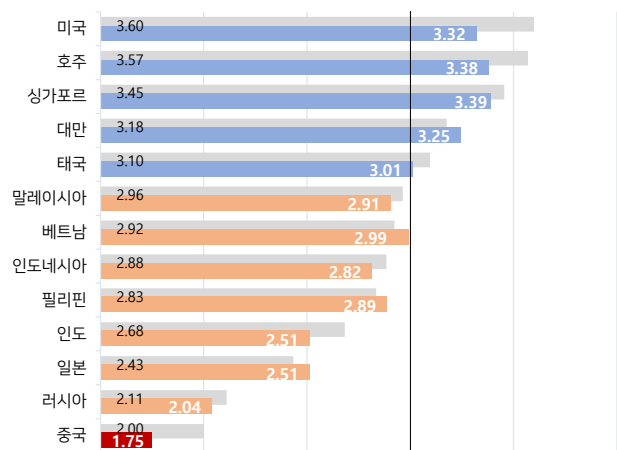
## □ 2030세대, 국민전체 대비 남성층 호감도 높아

-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에 대한 호감도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층은 국민전체에 비해 호감도가 높고, 여성층은 낮음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와 검은색 숫자는 국민전체 평점임
  -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이다'(3점) 기준선이고, 이보다 높으면 푸른색 계열 막대, 낮으면 붉은색 계열 막대로 표시함
- 여자 2030세대는 국민전체와 동일하게 미국, 호주,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5개국에만 호감을 표시함
  - 국가별 호감도 점수는 전반적으로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고, 특히 중국에 대한 호감도 점수는 매우 낮음
- 이에 비해 남자 2030세대는 5개국 외에 일본(남자 20대)과 베트남(남자 30대)에 호감을 갖고 있음
  - 국가별 점수는 전반적으로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으며, 남자 20대는 특히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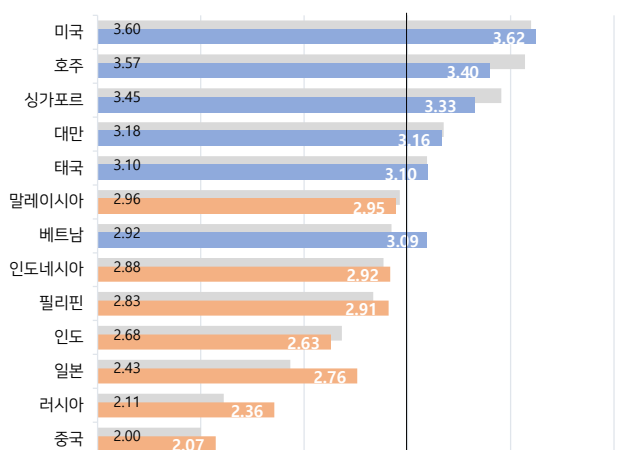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호감도 : 20대 남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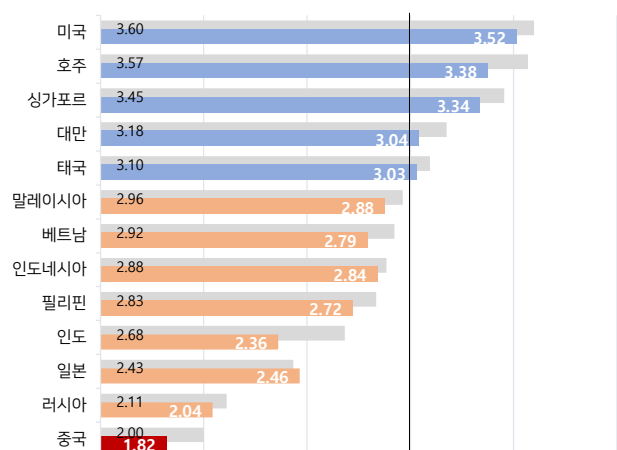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호감도 : 20대 여 (단위:점)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호감도 : 30대 남 (단위:점)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호감도 : 30대 여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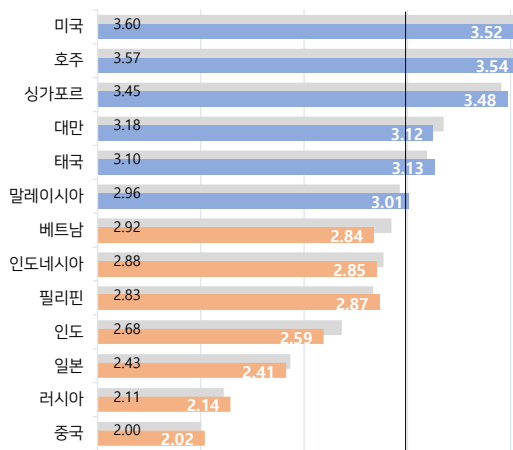
Kstat Point

- ☑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 속에 우리 국민들은 미국에 대해 우호적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 : 향후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태도 면에서, 국민인식만 놓고 보면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의견이 뚜렷함
- ☑ 2030세대 역시 이러한 의견에 같이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한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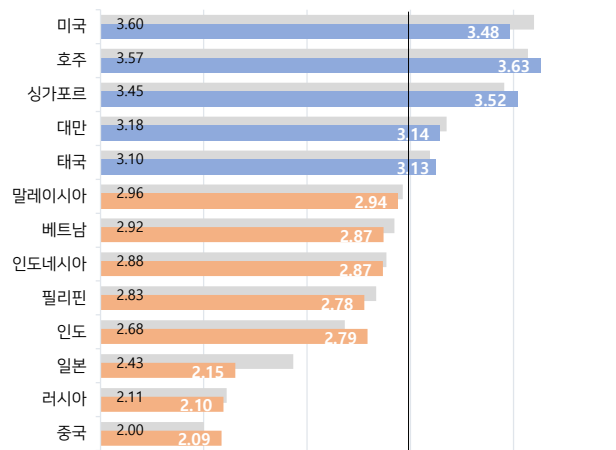
## □ 4060세대, 60대이상 국가호감도 가장 높아

- 4060세대의 국가 호감도는 전반적으로 2030세대에 비해 점수가 높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국가호감도 점수는 대체로 모든 연령층에 걸쳐 가장 높음
  - 60대 이상 국가호감도 점수는 일본과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국민전체 보다 높음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와 검은색 숫자는 국민전체 평점임
  -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이다'(3점) 기준선이고, 이보다 높으면 푸른색 계열 막대, 낮으면 붉은색 계열 막대로 표시함
- 세대별로 3점 이상의 호감도를 기록한 국가 수를 살펴보면 40대는 6개국, 50대는 5개국, 60대 이상은 7개국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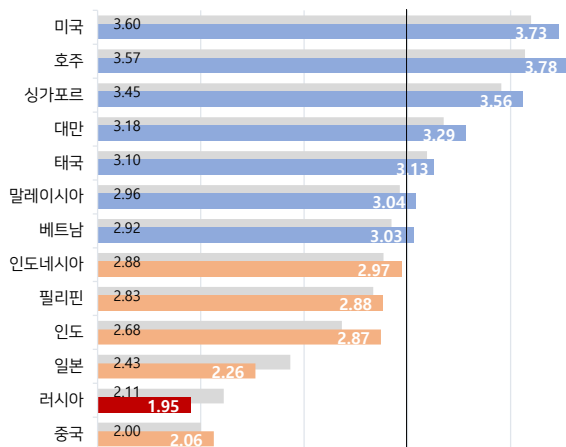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호감도 : 40대 (단위:점)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호감도 : 50대 (단위:점)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호감도 : 60대이상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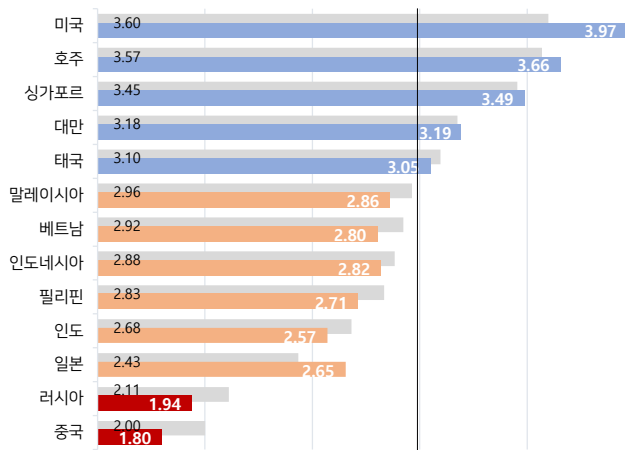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인도·태평양지역 주요국가에 대한 세대별 호감도는 대체로 비슷함
  - : 2030세대가 중국에 매우 부정적이고, 60대 이상이 국민전체 보다 호감도 점수가 높다는 점 외에 큰 차이가 없음
  - : 또한 전통적 4대 강국(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중 미국만 독보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인 점도 동일함
- ☑ 향후 미중 패권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각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일지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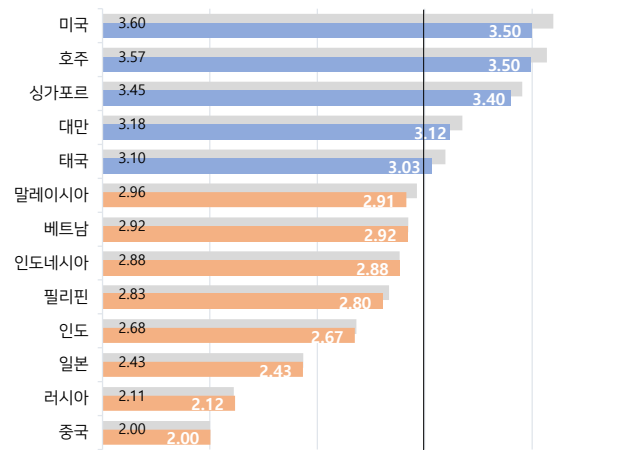
## □ 진보층, 호감가는 국가 수 8개로 특히 많아

- 각 국가에 대한 호감도를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과 중도층에 비해 진보층이 호감을 갖고 있는 국가 수가 많음
- 3점 이상의 호감도를 기록한 국가 수에 있어, 보수층과 중도층은 5개국이고, 진보층은 8개국임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와 검은색 숫자는 국민전체 평점임
  -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이다'(3점) 기준선이고, 이보다 높으면 푸른색 계열 막대, 낮으면 붉은색 계열 막대로 표시함
- 한편, 미국에 대한 호감도 점수를 보면, 보수층은 국민전체 보다 높은 호감도를 기록(3.97점)한데 비해 진보층은 낮은 호감도(3.43점)를 보임
  - 중도층의 미국 호감도 점수(3.50점)는 보수층과 진보층 중간에 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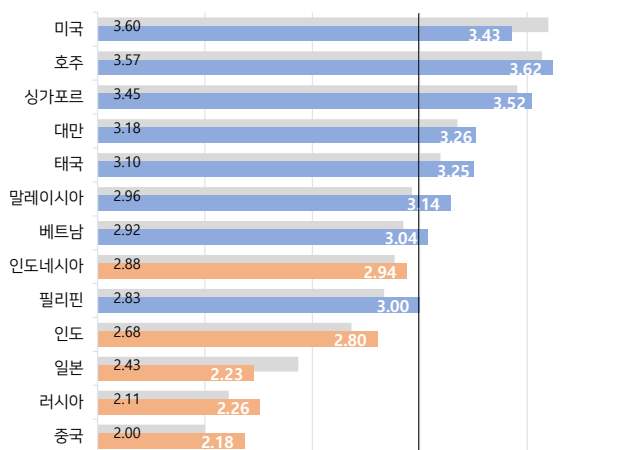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호감도 : 보수층 (단위:점)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호감도 : 중도층 (단위:점)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호감도 : 진보층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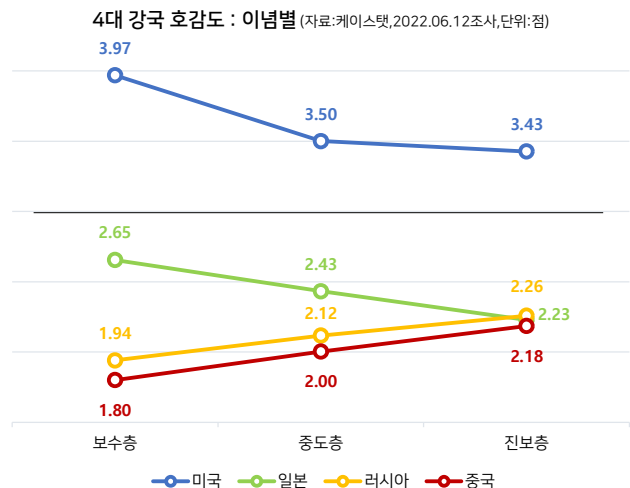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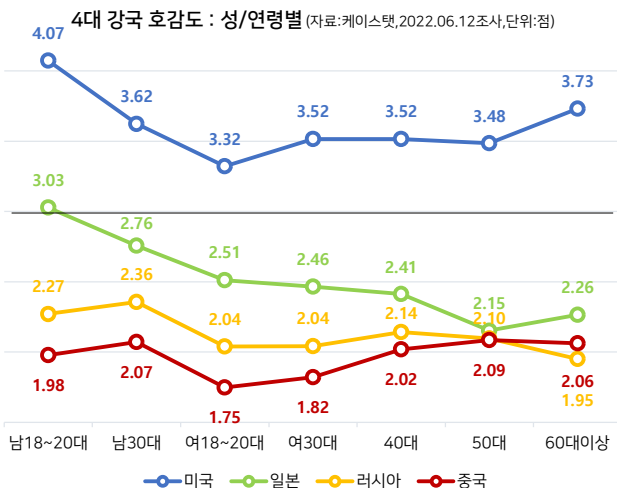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진보층의 호감도 국가 수가 많은데, 이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기 때문임  
 : 진보층은 국민전체적으로 호감도가 낮았던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 3점 이상의 긍정적 호감도를 보임  
 : 이에 비해 보수층과 중도층은 국민전체와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에 대해 3점 미만의 부정적 호감도를 표함

## □ 4대 강국 호감도 : 성/연령별, 이념별로 차이 보여

- 국가별 호감도를 4대 강국에 한정해 살펴보면, 먼저 미국에 대한 호감도 점수가 성/연령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남
  - 남자 18~20대의 호감도 점수가 가장 높고(4.07점),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높음(3.73점)
  - 이에 비해 여자 18~20대의 호감도 점수는 가장 낮고(3.32점), 다른 성/연령은 중간 수준에 위치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 선은 '보통이다'(3점) 기준선임
-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호감도 점수는 남자 2030세대 > 여자 2030세대 > 40대 > 50대 순임
  - 60대 이상 연령층은 50대보다 근소하게 높은 호감도를 기록함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미국·일본, 러시아·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다름
  - 미국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 점수는 보수 > 중도 > 진보 순이고,
  -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호감도 점수는 보수 < 중도 < 진보 순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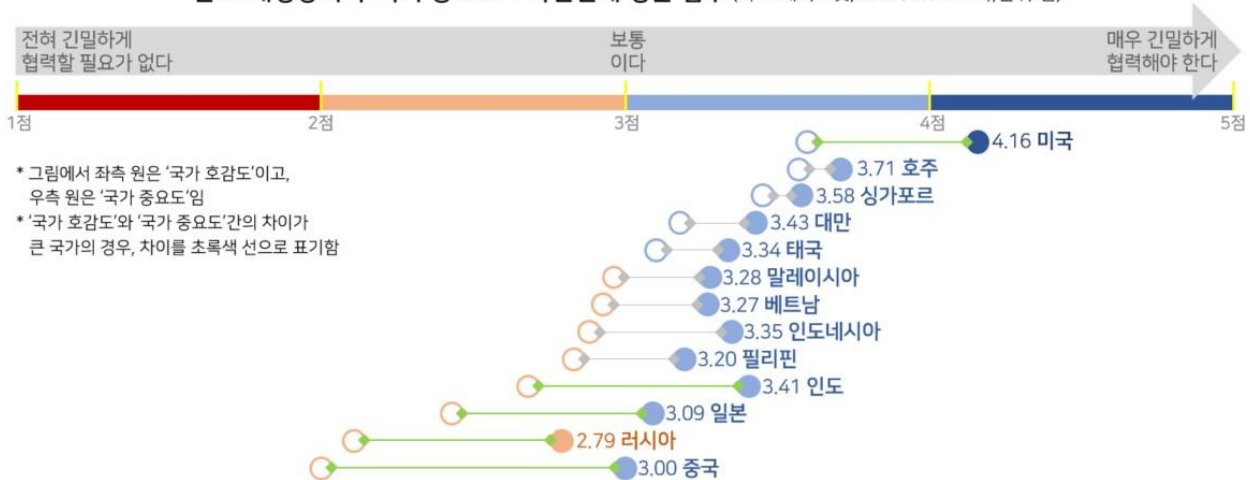
- ☑ 미국과 중국 간의 전 세계적인 패권 경쟁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이고, 이른바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임
- ☑ 이미 중국의 아시아 국가로의 세력 확장에 맞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맞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쿼드(Quad)'라는 4자 안보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등 반중국 전선을 명확히 하고 있음
  - : 2020년 8월 출범한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4자 안보협의체로 반 중국 군사동맹 성격이 강함
- ☑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쿼드' 참여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과의 협력 강화는 주문하고 있음
  -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에 참석 중인 한미일 정상은 29일에 3개국 정상회담을 갖는데, 이는 4년 9개월만임
  - : 핵심 의제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미국 입장에서 반 중국 전선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필수적임
- ☑ 그러나 미국의 의도와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상대국에 대한 반감 정서가 강해 한일 관계 정상화는 더디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 : 이번 조사에서도 보듯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부정적임(국민전체 호감도 점수가 2.43점에 불과함)

##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중요도'

### 모든 국가, '중요도' 높아지고, 미국 단연 1위

-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국가로 '미국'을 1위로 꼽음(4.16점)
  - “선생님은 향후 우리나라 국익을 생각할 때, 다음 각각의 나라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후 ‘전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없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5점을 기준으로 응답토록 한 결과임
- 다음은 ‘호주’(3.71점), ‘싱가포르’(3.58점), ‘대만’(3.43점), ‘인도’(3.41점) 순으로 응답함
- 협력 필요성이 낮은 국가, 즉 ‘중요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러시아’(2.79점)이고, 다음은 ‘중국’(3.00점), ‘일본’(3.09점) 순임
- 한편, 모든 국가들의 ‘중요도’는 ‘국가 호감도’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함
  - ‘국가 호감도’ 대비 ‘국가 중요도’ 점수가 높아진 국가는 미국, 인도, 일본,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임 (아래 그림에서 초록색 가로선 표기 국가)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중요도'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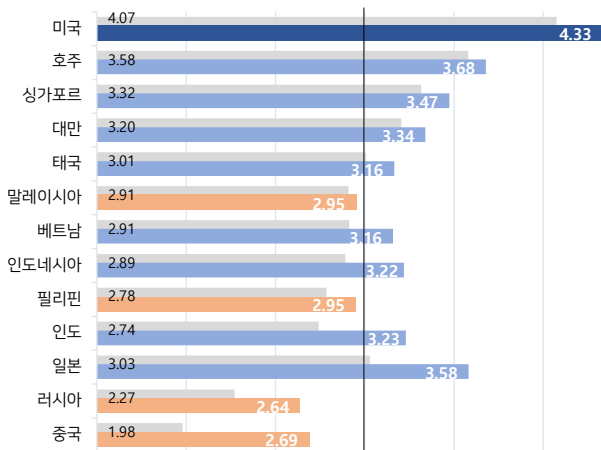
#### Kstat Point

- ☑ 모든 국가들이 '호감도' 대비 '중요도' 점수가 상승했으나, 기본적으로는 '호감도'가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보임
  - : 전반적으로 '호감도' 순위와 '중요도' 순위가 동일한 가운데, 순위가 달라진 국가는 3개국에 그침(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등)
  - : 또한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중요도'가 3점 이상을 기록, '협력'해야 하는 국가들이라고 응답,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뚜렷함
- ☑ 최근 미중 패권 경쟁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태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 이들 의견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하느냐, 폐기해야 하느냐로 대별 가능함
  - : '전략적 모호성'이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와중에 우리나라가 '어느 편'이라는 점을 드러내지 않음을 말함
- ☑ 지금의 국민전체 여론은 근소하게 '전략적 모호성' 유지에 방점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임
  - : 국민들은 미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4.16점), 동시에 중국과 '보통'(3.00점) 수준의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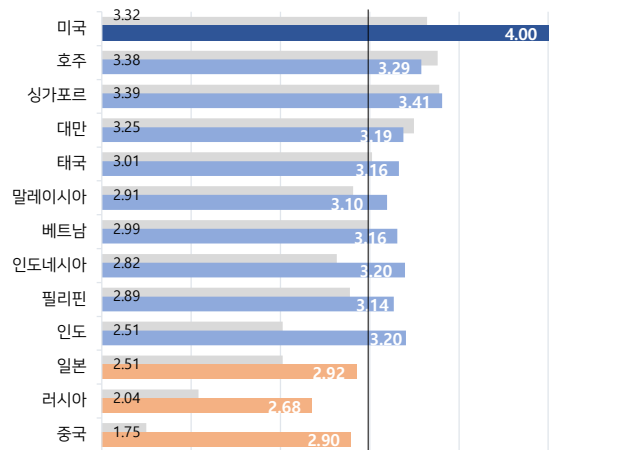
## □ 2030세대, '미국 중시, 중국 거리두기' 뚜렷

-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의 중요도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의 경우 남녀 모두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거리를 뒀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 남녀 2030세대 모두 미국 중요도는 4점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중국 중요도는 3점에 미치지 못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와 검은색 숫자는 해당 응답층의 '국가 호감도' 점수임
  -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이다'(3점) 기준선이고, 이보다 높으면 푸른색 계열 막대, 낮으면 붉은색 계열 막대로 표시함
- 남녀간 의견 차이를 보이는 국가는 일본으로, 남성층은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층은 거리를 뒀야 한다고 응답함
  - 남자 2030세대의 일본 중요도는 3점 이상을 기록했고, 여자 2030세대는 3점 미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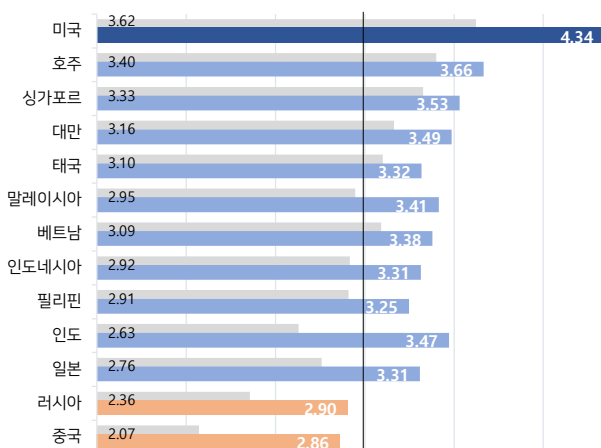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중요도 : 20대 남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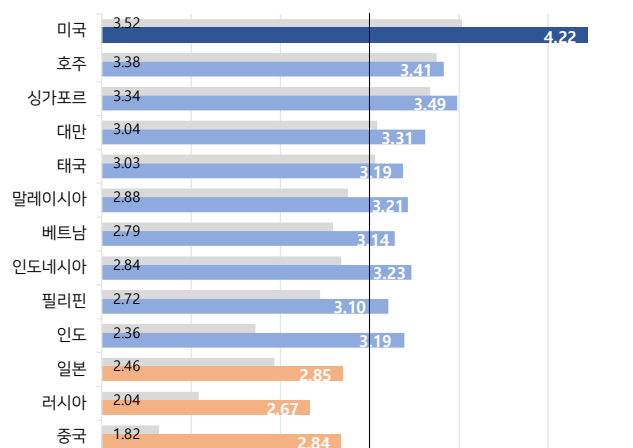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중요도 : 20대 여 (단위:점)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중요도 : 30대 남 (단위:점)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중요도 : 30대 여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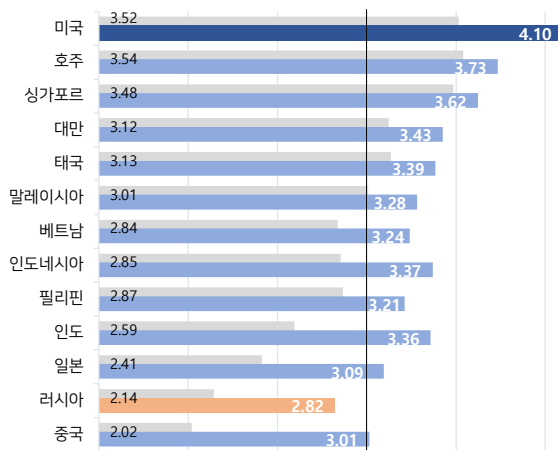
Kstat Point

- ☑ 앞서 언급한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2030세대는 '폐지' 의견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됨  
: 국민전체는 중국에 대해 '보통'(3.00점)을 매겼지만 2030세대는 3점 미만으로 거리를 뒀야 한다고 응답함
- ☑ 한편, 일본에 대한 태도는 남녀 간에 다른 응답을 하고있는 점이 특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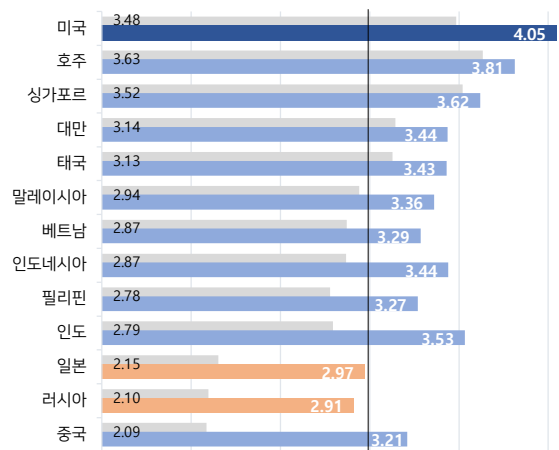
## □ 4060세대, 2030세대와 달리 '중국' 중시 경향

- 4060세대의 국가 중요도는 2030세대와 동일하게 미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 4060세대 모두 미국 중요도는 4점 이상의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와 검은색 숫자는 해당 응답층의 '국가 호감도' 점수임
  -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이다'(3점) 기준선이고, 이보다 높으면 푸른색 계열 막대, 낮으면 붉은색 계열 막대로 표시함
- 하지만 2030세대와 달리 중국에 대한 중요도 점수 역시 3점 이상을 기록함
  - 50대가 가장 높고(3.21점), 다음은 60대 이상(3.09점), 40대(3.01점)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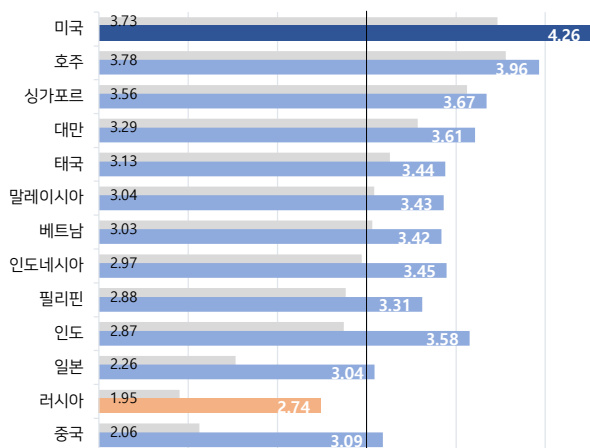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중요도 : 40대 (단위:점)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중요도 : 50대 (단위:점)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중요도 : 60대이상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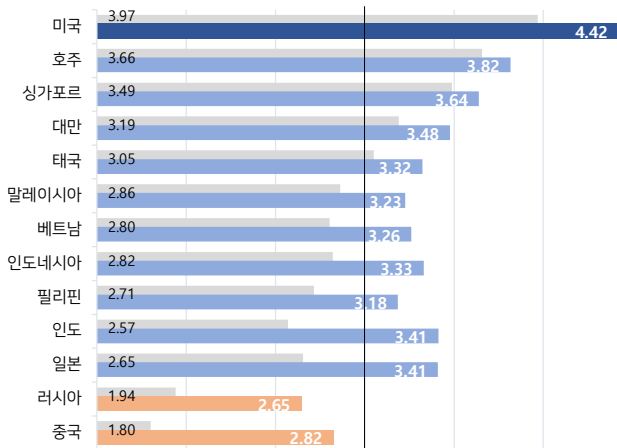
### Kstat Point

- ☑ 미중 패권 경쟁 외중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두고 2030세대와 4060세대 간의 생각이 다름  
: 즉, 그동안 우리나라가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2030세대는 폐기 입장에 가깝고(미국편 선언), 4060세대는 유지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됨
- ☑ 한편, 일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4060세대 내에서 다소 생각이 다름  
: 40대와 60대 이상은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50대는 거리를 뒀야 한다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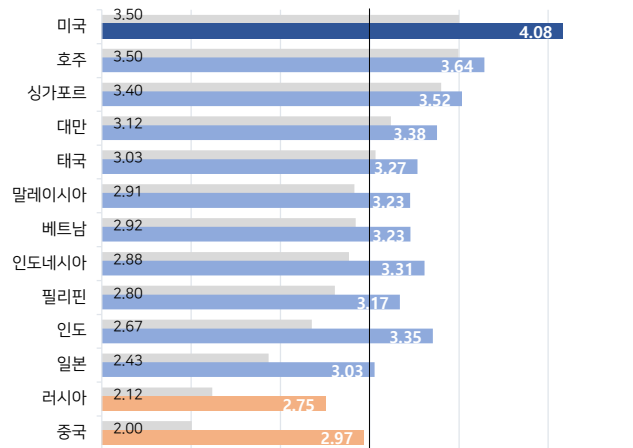
## □ 보수·중도층 '중국 거리두기' vs 진보층 '중국 협력'

- 국가 중요도를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미국에 대한 태도는 모두 '협력 강화'로 일치함
  - 보수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매기고(4.42점), 다음은 중도층(4.08점), 진보층(4.07점) 순임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와 검은색 숫자는 해당 응답층의 '국가 호감도' 점수임
  -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이다'(3점) 기준선이고, 이보다 높으면 푸른색 계열 막대, 낮으면 붉은색 계열 막대로 표시함
- 하지만 중국에 대한 태도에서는 보수·중도층은 '중국 거리두기' 의견이고, 진보층은 '중국 협력' 의견을 피력함
  - 보수층과 중도층은 각각 2.82점, 2.97점이었으며, 진보층은 3.22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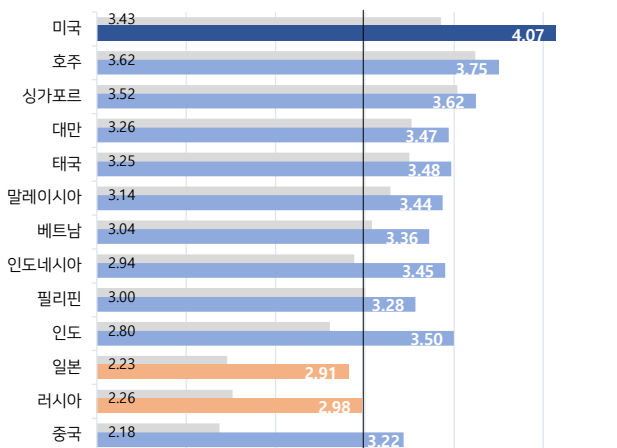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중요도 : 보수층 (단위:점)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중요도 : 중도층 (단위:점)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중요도 : 진보층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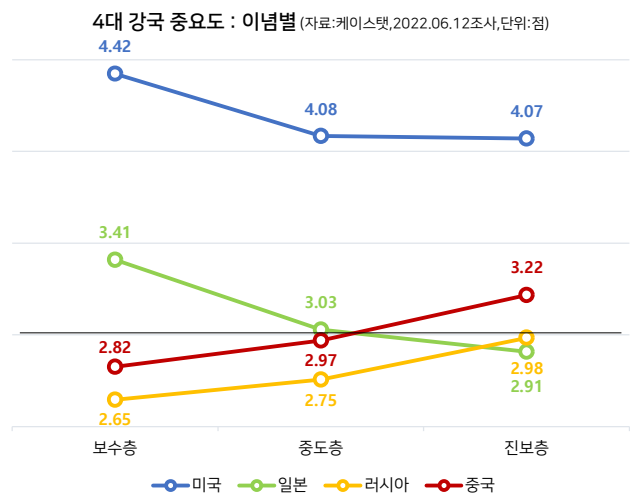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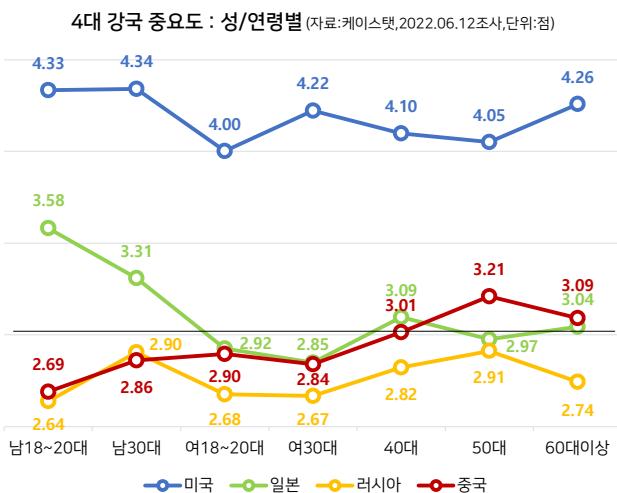


Kstat Point

- ☑ 미중 패권 경쟁 외중에서의 '전략적 모호성'을 둘러싼 보수층과 진보층 간의 생각 차이가 뚜렷함  
: 중도층은 근소한 차이로 보수층과 같은 의견을 표함
- ☑ 더불어 일본에 대한 태도 역시 보수·중도층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보층은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 □ 중국과 일본 중요도 따라 세대, 이념간 의견 갈려

- 4대 강국에 한정해 국가별 중요도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미국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함
  - 여자 18~20대의 중요도 점수가 가장 낮지만(4.00점), 그래도 4점 이상으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 선은 '보통이다'(3점) 기준선임
- 성/연령별로 차이가 나는 지점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태도로, 2030세대는 중국 거리두기 의견인데 비해 4060세대는 중국과의 협력 의견임
  - 일본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남자 2030세대와 40대, 60대 이상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 여자 2030세대와 50대는 거리를 뒀다 한다고 생각함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도 미국에 대한 태도는 비슷하지만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다름
  - 보수·중도층은 중국과 거리두기 의견인데 비해 진보층은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임
  - 또한 보수·중도층은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데 비해 진보층은 거리를 뒀다 한다는 의견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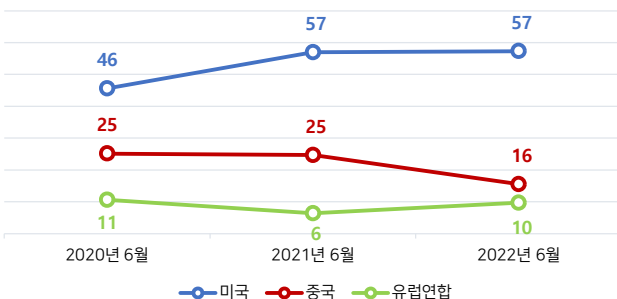
- ☑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음
  -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음
- ☑ 국제질서 재편기를 맞아 전 세계 국가들은 새로운 국가전략 수립에 몰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님
  - : 핵심은 국민여론과 동일하게 중국과 일본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임
  - :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 여부(중국에 대한 태도)와 일본과의 관계개선 여부임
- ☑ 그러나 북핵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난이도를 갖고 있다는 지적임
  - :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갈 것인지, 앞으로 국내외의 주된 관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 향후 세계 경제강국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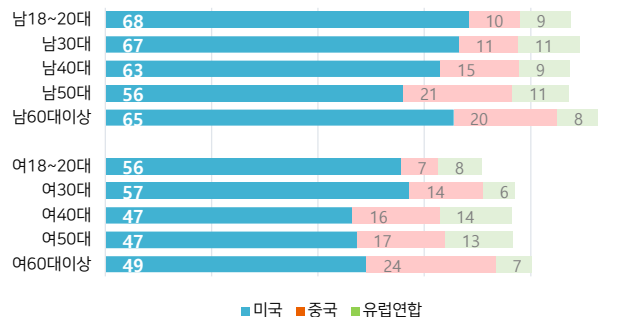
### □ '미국' 우위 유지되는 가운데, '중국' 응답 하락

- 우리 국민 다수는 미국이 향후 세계 경제강국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앞으로 20년을 전망할 때, 다음 중 어느 국가가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국민 중 57%는 미국을 꼽았고, 다음은 중국(16%), 유럽연합(10%), 일본(0.5%) 순으로 응답함 (잘 모르겠다, 17%)
- 작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미국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한데 비해 중국은 9%p 하락했으며, 유럽연합은 4%p 상승함
  - ‘일본’이라는 응답은 0.5%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함
- 계층별로 살펴봐도 모든 계층에서 미국 우위가 확고함
  - 미국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TK △보수층 등임
- 중국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60대이상 △진보층 △주부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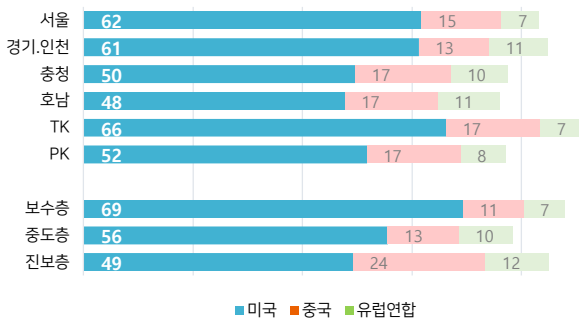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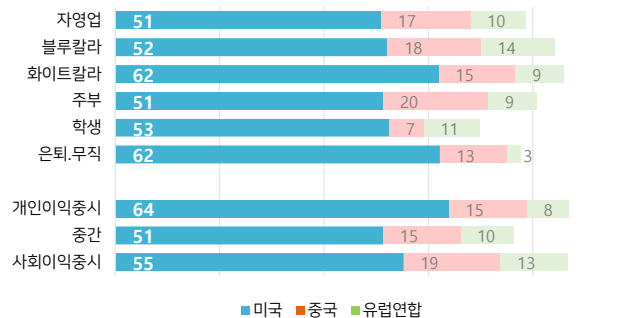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전망 : 성/연령별 (2022.06.12조사,단위:%)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전망 : 지역별,이념별 (단위:%)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전망 : 직업별,이직종시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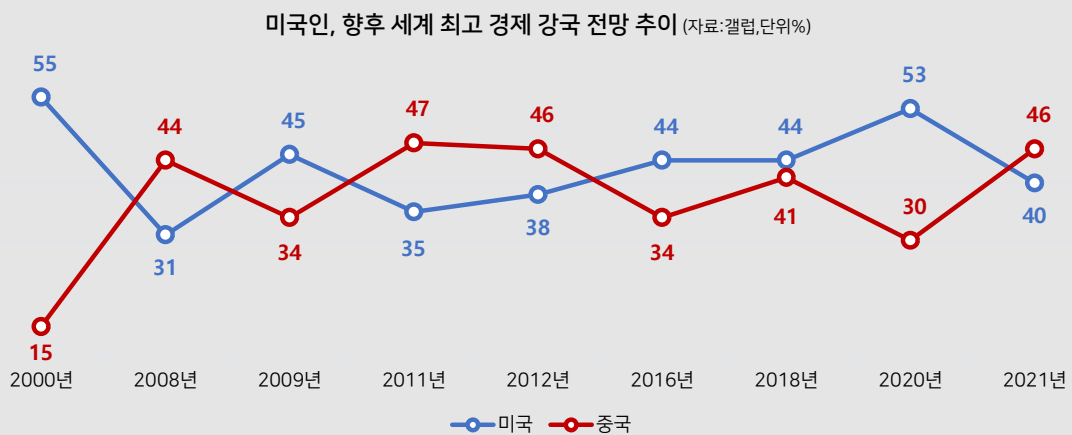
#### Kstat Point

- ☑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에 대한 전망에 있어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라는 의견이 매우 확고함
  -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미국이 3년 연속 높은 수치로 1위를 차지함
- ☑ 향후 전망에 있어 특이한 점은 2030세대는 미국이라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고, 4060세대는 중국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임
  - ：앞서 국가호감도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2030세대와 4060세대 간의 태도 차이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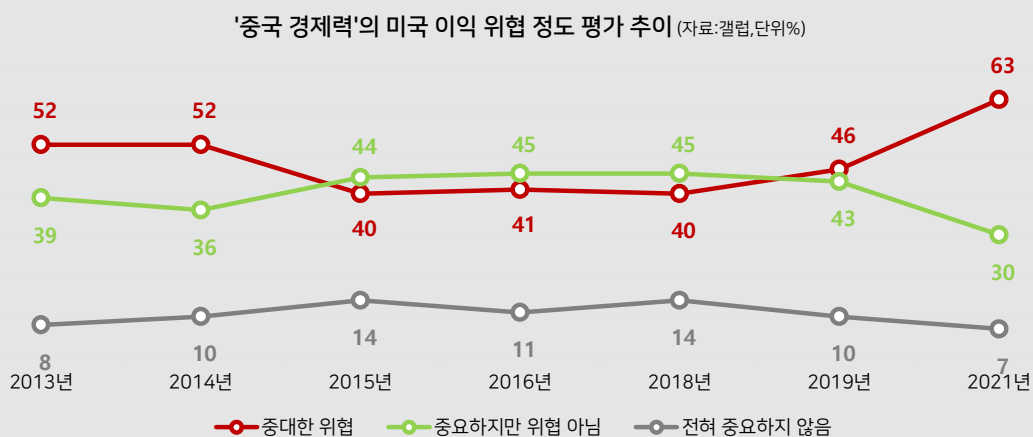
## ※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

☑ 우리 국민들은 향후 중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는 점에 회의적이지만, 중국과 패권 경쟁 중에 있는 미국인들은 매우 다르게 생각함

☑ 향후 세계 최고 경제강국 전망에 대해 미국인들은 '중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이라는 응답이 혼재 양상을 보이다, 2021년에는 중국이라는 응답이 우세함 (자료, 갤럽)



☑ 또한 미국인들은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앞서 향후 중국이 세계 최고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2021년 시점을 보면 미국인 중 63%가 중국의 경제력을 '중대한 위협'으로 생각함



☑ 이러한 미국인의 생각은 지지 정당, 인종, 나이, 직업 등과 무관하게 대체로 일치된 의견임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mailto: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 [케이스탯 리포트 54,55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54호와 55호는

여름 휴가철 일정으로 인해 각각 7월 7일(목요일), 7월 21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7월 사회지표는 7월 14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

